








기초단체장 후보 인물·정책 검증

나주시장, 담양·장성군수

■ 나주시장

		
김대동 (60) 민주당	김명화 (61) 무소속	신정훈 (41) 무소속
현직 민주당 전남도당원	무직	나주시장
학력 전남대 농과대1년 중퇴	동국대 행정대학원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주요경력 나주시장	나주경찰서장	제5, 6대 전남도의원
병역 소집면제	ROTC 헌병 중위	면제(수형자)
재산 피약 중	12억원	5천342만원
주요공약 (3가지)	-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 - 영산강 고대 관광문화권 개발에 따른 나주시역 경제활성화 방안 - 문화, 관광, 레저의 다양한 문화 도시 육성	- 산학협동체제의 혁신도시 건설 - 첨단고소득 농업도시육성 - 예산공개, 주민참여 자치행정 - 최고수준의 교육지원대책 추진

■ 담양군수

		
최형식 (51) 우리당	이정섭 (57) 민주당	강대령 (39) 무소속
현직 담양군수	정치인	학생
학력 전남대 박사과정 휴학	담양 농업고등학교	호남대 대학원 재학
주요경력 전남도의원(3선)	담양읍장	국민회의 제2국무 부위원장
병역 육군 이병	복무면료(소집해제)	복무면료(소집해제)
재산 1억6천206만3천원	100만원	3천만원
주요공약 (3가지)	- 1조7천억이 넘는 투자유치 - 내륙형 레저휴양의 메트로 육성 - 전남대 제2캠퍼스 유치	- 광주시 담양군 행정구역 개편추진 - 마니 맵(Money Map) 제도시행 - 영수증 재활용 제도

■ 장성군수

		
고일갑 (39) 우리당	이병직 (61) 정당인	유두석 (56) 무소속
현직 조선대대학원 초빙교수	정당인	무직
학력 조선대 대학원	조선대 법정대학	경원대 대학원 박사과정
주요경력 법률지원단 법무기획위원	장성문화원장	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병역 하사 전역	ROTC 제대	상병 만기 제대
재산 12억원	3억5천만원	10억5천만원
주요공약 (3가지)	- 교육부문에 수입 예산중 5% 집중지원 - 중국어 마을 유치 - 그린벨트 해제의 친환경 도농 건설	- 장성 4개 권역별 균형발전과 관광 장성육성 - 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 교육과 노인복지 실현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 농업개방시대 대책 절실

■ 나주시장

민선 3기 동안 현직 시장의 재선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유권자들의 표심 향방을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무소속 신정훈 현 시장의 재선 가도에 김대동 전 시장(민선 2기)이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고 제도권,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상이다.

정력 강화를 비롯한 선진형 지방자치체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김대동 후보는 “민주당 재건과 중단 없는 나주 발전,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면서 영산강 뱃길을 복원, 나주를 물류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남도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하고 나주발

현시장 수성에 민주·무소속 도전장 영산강 뱃길 복원·지역경제 활성화

무소속 신정훈 시장은 “이번 선거는 중앙 정치나 특정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주의 미래와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혁신도시 건설의 열매를 나주의 몫으로 옮겨줄 혁신시장, 농업개방시대에 대비한 농민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후보는 “지난 4년간 혁신도시 유치와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 국가계획 확정, 국내 최대의 드라마세트장 및 남양유업 나주 공장 유치 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한 만큼 나주의 미래백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세(水稅) 강제징수 저지와 민주화투쟁 등으로 두 차례 옥살이를 한 농민회 출신이자 최연소 도의원을 지낸 신 시장은 세계 제1의 혁신도시 건설과 농업혁신도시 조성, 교육경

전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경륜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농업정책은 17개 농업조합 경영자들과, 복지정책은 종교계 지도자 및 출향 향우들과 함께 새 모델을 만들고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서울종로경찰서장을 지낸 무소속 김명화 후보는 “그동안 쌓은 치안행정 경험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 정열을 바치고 싶다”며 표발감에 나섰다. 김 후보는 광주~나주간도로 8차선 확장으로 나주와 광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산학협동체제의 혁신도시 건설, 첨단고소득 농업 육성, 주민참여형 자치행정 실현에 역점을 두겠다는 각오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생태도시 육성·대나무산업 ‘잘사는담양 만들기’ 자신

■ 담양군수

담양군수 자리는 열린우리당 최형식, 민주당 이정섭, 무소속 강대령 후보가 각각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열린우리당 최형식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전남도의원 3선을 지내다 지난 2002년 무소속으로 담양군수에 당선된 특수의 정치인. 그는 “행자

강조하고 있다. 학교생활에 이어, 봉산면장·군 사회복지과장·담양읍장 등을 지내느라 등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거의 담양에서 한 인물이다. 그는 ‘담양의 든든한 상머슴’을 자칭하고 이번 선거에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나아가 “대나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않은 채 군수와 몇몇 사람이 정책을 결정하고 따라 오라고만 하는 행정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며

인정된 리더십·행정 경륜 자부 과감한 투자 교육환경 개선

부 평가 기초단체장 리더십 부문 전남 1위,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행정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민선 3기가 담양 발전의 장기적 밑거름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4기는 이를 빨리 마무리하고 10년 후 잘 사는 담양을 그려야 한다”고 재선의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또 “1조 7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생태도시 프로젝트와 대나무산업으로 농업경제를 살리겠다”며 “법담양인 담양교육살리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오는 2020년 담양의 GRDP가 4만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정섭 후보는 담양 토박이임을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축산·교육예산 대폭 확대 고향 일으킬 ‘성실한 일꾼’

■ 장성군수

현직인 김흥식 군수가 3선 연임으로 인해 출마를 뜻하는 바람에 무주공산이 된 단체장 자리를 놓고 열린우리당 고일갑, 민주당 이병직, 무소속 유두석 후보가 각각 나섰다. 열린우리당 고일갑 후보는 학업을 마치고 지난 1995년 귀향, 2000년 새천년민주당에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며 정치에 입

한 황룡강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4년 도의원으로서 현실 정치와 지방행정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해와 잘 사는 군민, 부자 장성을 만들 자신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장성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생태공원, 웰빙주거단지, 고부가가치 자연산업단지 등으로 특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무소속 유두석 후보는 교직에 있던 부인

우리·민주·무소속 후보 3명 경합 자연산업단지 등 특화산업 육성

문했다. 지난 2002년에는 무소속으로 도의원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고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장성연락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중앙당 법무기획위원으로 각종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현재 10%에 불과한 농축산 예산을 25% 이상으로 늘리고 원어민 교사나 우수 교사를 유치하는 등 교육 부문 예산도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나아가 광주 첨단지구 인근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것을 공약했다. 민주당 이병직 후보는 “장성에서 각종 사업을 했고 15년간 장성문화원장을 지내느라 30여년 이상 장성을 연구했다. 앞으로도 장성에서만 살아갈 순수 장성인으로 ‘위대

과 동반 귀향해 화제가 됐던 인물. 또 견고 부에서만 30여년을 근무한 것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전문가를 자처한다. 침체한 지역 경제와 위기에 처한 농촌을 회생시켜 달라는 고향 사람들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또 “장성군 재정자립도가 11.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군세가 날로 위축돼 가고 있어 국가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획기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과 인구 유입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와 관련, 그는 “당초 민주당 공천을 희망했으나 불공정 경선의 희생양이 되지 말고 군민에게 직접 심판받으라는 지역민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